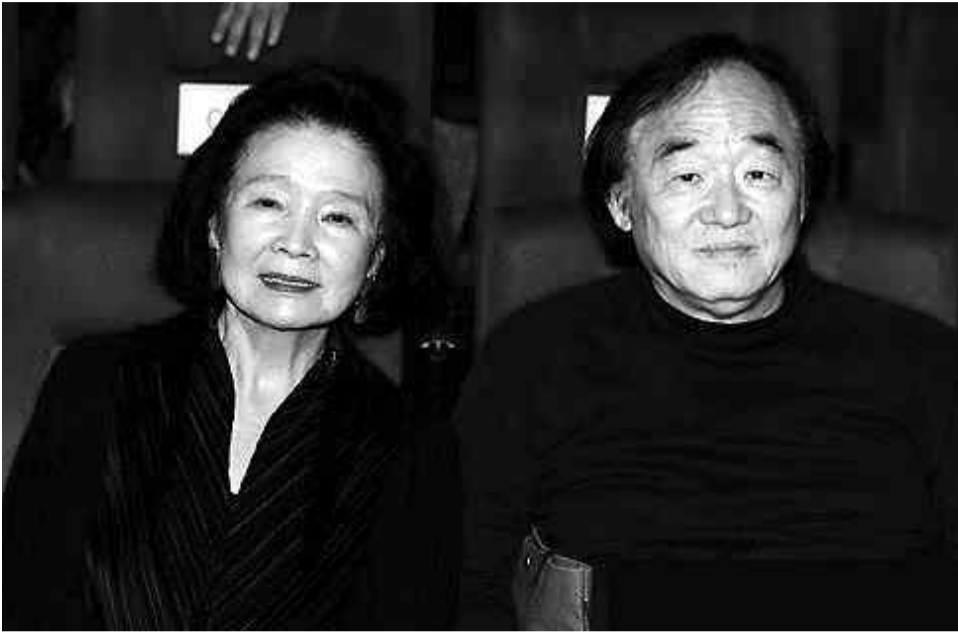


배우 윤정희 파리에 잠들다



배우 고(故) 윤정희 씨와 남편 피아니스트 백건우 씨

지난 19일 향년 79세로 세상을 떠난 영화배우 윤정희(본명 손미자)는 1960~80년대 은막을 장식했던 대표 배우였다.

1944년 부산에서 태어난 고인은 전남여고를 거쳐 조선대 영문학과 재학 중 신인배우 오디션에서 선발돼 1967년 영화 '청춘극장'으로 데뷔했다. 그해 대중상영화제 신인상, 청룡영화제 인기여우상을 받으며 일약 스타덤에 올랐다.

이듬해에는 작품 '안개'로 백상예술대상 신인상도 받았다. 그는 주로 1960~80년대 많은 작품에 출연했다. 배우로서 활동한 작품이 총 280편에 달한다. 주요작으로는 '신궁'(1979), '위기의 여자'(1987), '만무방'(1994) 등이 있다. 2010년 이장동 감독의 '시'를 마지막으로 사실상 배우로서 활동은 중단했다.

1973년 프랑스 유학길에 올라 파리 제3대학에서 영화학으로 석사학위를 받기도 했다. 고인은 각종 영화제 심사위원으로도 활동해 몬트리올영화제 심사위원(1995), 제12회 뭄바이영화제 심사위원(2010), 제17회 디나르영화제 심사위원·청룡영화상 심사위원장(2006) 등을 지냈다.

10여년간 알츠하이머로 고생해온 그는 파리 자택에서 지내왔다.

윤정희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피아니스트 백건우(77)다.

"제가 생각했던 남자를 찾은 것 같아요. 예술을 하는 순수하고 착한 사람. 제가 렉키한(행복한) 것 같아요."

그는 생전에 남편 백건우에 대해 순수하고 착한 사람이라고 자주 말하곤 했다.

사색적이고 철학적인 음악 세계로 '건반 위의 구도자'라 불리는 백건우는 윤정희에게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이기 이전에 착하고 다정한 남편이고 또 친구였다. 백건우-윤정희 부부가 오랫동안 거주해온 프랑스 파리의 교

조선대 재학중 배우로 선발

1960~80년대 은막 스타

'안개' 등 280여편 출연

음악가 백건우와 잉꼬부부

10여년간 알츠하이머 투병

민 사회에서는 부부가 늘 손을 잡고 다니던 모습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다.

윤정희는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던 1976년 백건우와 전격 결혼을 발표해 팬들을 놀라게 했다. 1972년 독일 뮌헨 올림픽 문화행사에서 처음 만났던 두 사람은 2년 뒤 프랑스 파리의 한 한국음식점에서 우연히 다시 만나 운명 같은 사랑을 시작하고 2년 뒤 결혼에 골인했다. 결혼식은 두 사람에게 부모처럼 가까웠던 재불화가 이응로(1904~1989) 화백의 파리 20구 자택에서 한복을 입고서 소수의 지인만 참석한 가운데 조용하게 열렸다.

결혼 바로 이듬해 딸 진희씨가 태어난 다섯 달 뒤에는 이들은 남북(北南) 미수 사건에 휘말리기도 했다. 스위스의 한 부호의 연주회 초청을 받고 유고로 들어갔다가 납치 일보 직전에 극적으로 빠져나왔다.

아내의 투병 소식을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던 백건우는 2019년 국내에서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윤정희가 10년 전부터 알츠하이머 병을 앓고 있다"고 털어냈고 송사에 휘말리기도 했다.

한편 윤정희의 장례가 오는 30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인근의 한 성당에서 가까운 친인척과 지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고인의 유해는 장례식 이후 화장돼 인근의 묘지에 안치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배우 김혜자' 한 권에 담았죠

연기 인생 60년 '생애 감사해' 출간 대표작 '전원일기' 22년 간 출연 스타 작가·감독 '위대한 배우' 찬사 "그리운 배우로 기억되고 싶어"

"나는 할 줄 아는 게 연기밖에 없으니까 할 뿐입니다. 이것이 가장 좋고, 언제나 가슴이 뛰니까."

배우 김혜자(82·사진)가 지난달 연기 인생 60년을 담은 책 '생애 감사해'를 펴냈다.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이후 14년 만이다. 전작이 아프리카 아이들에 대한 인류애를 전했다면, 이번 책은 김혜자가 배우로서 느낀 행복과 고민 그리고 감사함이 담겼다.

최근 저자 사인회를 위해 서울 광화문 교보문고를 찾은 김혜자를 만났다.

본인은 연기자로 평생을 살아온 일을 대수롭지 않아 했지만, 그는 봉준호 감독을 비롯해 여러 연출가와 작가가 "위대한 배우"라는 찬사를 보내는 대배우다.

대표작 '전원일기'(1980~2002)에서는 쪼그리고 앉아 대파를 다듬는 '국민 엄마'로, 영화 '마더'(2009)에서는 아들을 위해 살인, 방화 등을 서슴지 않는 광기에 휩싸인 노모로, 드라마 '눈이 부시게'(2019)에서는 생의 아름다움을 일깨워주는 치매 환자로 시청자와 관객을 만났다.

'전원일기' 세대는 조미료 광고의 "그래, 이맛이야"라는 광고 문구로, MZ세대는 편의점 도시락 광고로 생겨난 '혜자스럽다'(양이 많고, 질이 좋아만 족스럽다)는 신조어로 김혜자를 기억하기도 한다.

그는 대학교 2학년 겨울방학, KBS 텔런트 공채 1기생으로 탈락 뺏겼지만, 연기에 대한 기초가 없어 손끝 하나 움직이는 것도 무서웠다고 회고했다. 도망치듯 결혼하고, 아들을 낳고 한동안 평범하게 살았지만, 선배의 권유로 연극 무대에 다시 올랐다.

이후 운명 같은 작품인 '전원일기'를 만났다. 드라마 방영이 10년이 넘어가면서는 이야기의 변곡점이 필요해 보여 극 중에서 자신의 배역을 죽여달라고 한 적도 있지만, 종영까지 22년간 히로애락을 함께했다.

"'전원일기'를 빼놓고 나의 연기 생활을, 나의



삶을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전원일기'는 나에게 '인생 교과서'였습니다. 사람들 사이의 이해와 배

려와 순수가 그곳에 있었고, 사소해 보이지만 사람들의 삶을 채워 나가는 꾸밈없는 일상이 있었습니

다. '전원일기' 덕분에 나는 많이 성숙한 인간이 됐습니다."

김혜자는 배태랑 연기자지만 새로운 배역을 맡을 때마다 신인 같아진다고 했다.

"나 자신이 납득할 때까지 대사를 백 번도 더 읽습니

다. 아까 했던 것과 지금 한 것이 다르니까. 아흔아홉 번째 했을 때는 몰랐던 것을 백 번째 했을 때 느껴지는 것이 있으니까. 읽을수록 느껴지니까 대본을 계속 읽고 싶어집니다."

배우는 대본의 '갓나'라는 대사를 두고 '갓다', '갓구나'가 아닌 이유를 고민해야 한다는 게 그의 신념이다. 과거부터 "톨스토이가 써도 쪽대본(작가가 시간에 쫓겨 촬영 직전에 전달한 대본)은 안 한다"는 고집을 부려온 것도 이 때문이다.

연기에 이렇게까지 혼신의 힘을 쏟아내니 스타 작가들도 그를 계속 찾았다. '전원일기'로 오랜 시간 호흡을 맞춘 김정수 작가는 물론 시청률 64.9%를 기록한 '사랑이 뭐길래'(1991~1992)의 김수현 작가와는 무려 17편을 함께했다.

일상적인 엄마 역에 싫증이 날 때쯤 찾아온 작품은 봉준호 감독의 '마더'였다. 김혜자는 '마더'가 죽어 있던 세포를 깨워줬다고 말한다.

"거기서 거기인 엄마 역만 수도 없이 했습니다.

배우로서 그건 지치는 일입니다. 그 사람(봉 감독)은 내 안에 있던, 아직 분출되지 않았던, 배우로서의 다른 모습을 표현시켰습니다."

그는 촬영에 들어가기 전 봉 감독에게 "나를 많이 괴롭히고 극단까지 밀어붙여 달라"는 주문을 했다고 했다. 실제 봉 감독은 촬영 때 "선생님, 눈만 동그랗게 뜨지 마시고요!"라며 '연기 지책'을 했다고 했다.

김혜자는 속상함에 눈물까지 터트렸는데, 훗날 봉 감독이 그 모습을 기억하며 "연기가 마음에 안 든다고 우시더라. 메시가 자신의 축구 실력이 마음에 안 든다고 울고 있는 것과 비슷하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김혜자는 평생을 연예계에 몸담았지만, 화려한 삶과는 거리가 멀다. 말실수할까 봐 사람들도 만나지 않는 '은둔형'이다. 마더 촬영 때까지도 핸드폰이 없어 제작진이 소통을 위해 핸드폰을 사서 쥐여줬다고 했다. 지금도 매니저나 코디네이터 없이 활동한다.

최근에는 작품을 할 때마다 마지막 작품이 될 수 있다고 여기고 혼신을 바친다는 김혜자는 "죽을 때까지 멋있었다"라는 말을 듣고 싶다고 했다.

"배우는 죽지 않으면 연기해야 합니다. 누구도 내 역할을 대체할 수 없으니까. 링거 맞고 촬영장에 나간 적도 수없이 많고, 병판에 넘어져 다리가 부러졌는데도 병원에서 녹화했습니다. 대중에게 늘 그리운 배우로 기억되고 싶은 것이 소망입니다." /연합뉴스

영화 '아바타2' 팬데믹 후 첫 천만 돌파

영화 '아바타: 물의 길'(이하 '아바타 2')이 24일 누적 관객수 1000만 명을 넘어서면서 전편 '아바타'(2009)의 기록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제임스 캐머런 감독이 '아바타' 5편까지 만들겠다는 계획을 밝힌 가운데 '아바타 2'의 흥행이 후속작의 성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영화계는 '아바타 2'가 전편의 최종 관객수(1362만여명)를 뛰어넘기는 어렵겠지만, 특별관 상영에 힘입어 훨씬 더 많은 매출을 올릴 것으로 보고 있다.

'아바타 2'는 개봉 42일째인 이날 1000만 명을 돌파했는데 이는 38일 만에 천만 영화에 등극한 '아바타'보다 4일 늦은 기록이다. 코로나19 여파

지속, 관람료 인상, 신작 개봉 등도 '아바타 2'의 장기 흥행에 걸림돌로 꼽히는 요소다.

그러나 매출액으로는 전편을 가볍게 뛰어넘을 전망이다. 전년 기준 '아바타 2'의 누적 매출액은 1262억9000여만 원이다. 1편보다 관객수가 360만 명 정도 적는데도 매출액 차이는 22억 원도 채 되지 않는다. '아바타'의 총매출액은 1284억 4000여만 원이다. '아바타 2'와 동시에 촬영을 진행한 3편은 현재 후반 작업 중에 있으며 내년 12월 개봉될 예정이다.

개봉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튼튼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광주문화신탁이 평생어부바 해드리겠습니다

자산규모
1조3천억원

1993년 창립 이후
28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7%이상
지역사회환원

대표번호 1644-7990

본점(본부, 사업본부), 문흥지점, 양산지점, 운암지점, 동림지점, 매곡지점, 천단지점, 동광주지점, 각학지점

